

“신임받는 목사회 향해”

제45회 정기총회, 회장에 김영대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제 45회 정기총회가 21일 오전 11시에 풍성교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장은 김영대 목사(라팔마 한인연합감리교회 차세대 사역), 수석부회장은 김영모 목사(한미장로교회)가 각각 추대됐다.

김영대 목사는 “부족한 것이 많고 경험이 부족한 저를 목사회 회장으로 뽑아주시는 하나님과 목회자들에게 감사하다. 특별한 협력과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며 “앞으로 전통을 이어가며 신임받고 높이 평가받는 목사회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 안건으로 다음 회기부터 윤리분과위원회를 세우는 것과 2년 후부터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출을 투표로 하자는 건이 통과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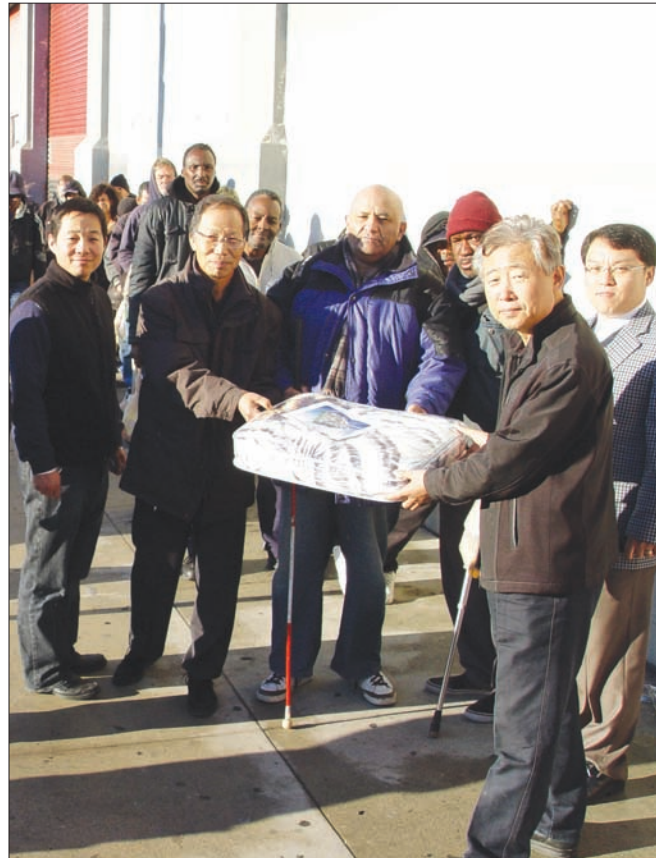
김영대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는 대표기도에 김영모 목사, 설교에 석태운 목사(목사회 중경회장), 헌금기도에 이흥연 목사, 광고에 정요한 목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여호와 로이”(시23:1-6)라는 제

목으로 말씀을 전한 석태운 목사는 “아가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며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에 보면 ‘하나님을 믿나’라는 질문에 그는 ‘50:50’이라 답했다. 그리고 ‘절대적인 힘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이보다 믿음이 작다는 것인데, 믿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말했다.

회계보고에 의하면 지난 회기 총수입은 \$152,097.86, 총지출은 \$146,476.35로 잔액은 \$5,621.51이었다.

남가주한인목사회는 지난 2010년 12월 4일 사랑의콘서트를 시작으로 2011년 1월 18일 사모 세미나, 3월 1일 삼일절 기념예배, 3월 14-16일 윤석전 목사 초청 남가주 선교대회, 6월 22일 리종기 목사 집회, 9월 16-18일 피종진 목사 초청 남가주선교대회 등으로 지역교회와 한인단체를 섬겨왔다. → 5면에 사진

토마스 맥 기자



즐거은 추수감사절, 노숙자들에게 사랑의 담요 전해요

22일 소중환사람들대표 김수철 목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들에게 사랑의 담요를 전달하고 있다. 소중환사람들은 지난 10년간 추수감사절마다 노숙자들에게 담요를 전달하며 사랑을 나눠왔다.

INTERVIEW

말씀 전수와 세계 선교의 사명 G-비전 153 글로벌 미션

강신권 목사. 그를 수식하는 많은 말 중 가장 대표적인 것 두가지를 꼽으라면 세계성경장로교회(WBPC) 담임목사라는 것과 코헨신학대학교 설립총장이라는 것이다. 한 교회를 담임하며 성실히 목양하는 하나님의 종이며 동시에 교육과 후학양성을 멈추지 않는 열정적 학자란 뜻이다.

강 목사로부터 그의 목회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인터뷰를 청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주제에 대한 그와의 인터뷰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돼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다.

왜냐면 그가 담당하고 있는 이 두가지 사역은 애초부터 모두 세계 선교라는 중대한 과업과 켈레야 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말씀 전수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며 “구약의 믿는 이인 유대인들은 말씀 전수에는 성공했으나 세계 선교에는 실패했고 신약의 믿는 이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선교에는 열심을 내고 있으나 말씀 전수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이 두가지를 아우르는 선교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고 말했다.

그가 1987년 게리 코헨 박사, 벤더메이 박사 등과 함께 설립한 코헨신학대학교는 현재 전세계 89개 분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단순히 신학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수천명에 달하는 교수, 학생, 동문들이 그곳을 세계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아 전략적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신학 교육과 선교가 하나로 묶



강신권 목사

여 있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G-비전 153 글로벌 미션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 사역을 소개하며 제4세계 선교와, 말씀 전수가 기초가 된 세계선교 사역 등에 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편, 그는 다민족 사회의 비전을 갖고 1991년 한류기독교연맹을 창립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계본부 상임본부장, 나눔과기쁨 미주본부장, CSA원전해석학회 회장, 피드먼트대학교 대표총장을 맡고 있다. G-비전 153 글로벌 미션의 총재이며 성경구조해석학, 유대인 현대교육 등의 저서를 펴냈다.

→ 2면에 계속

최삼경 목사의 월경잉태 · 삼신론 주장, 이단으로 판단돼

한기총 청문회 참석해 답변 못하고 기자회견으로 변명

삼위일체를 두고 “귀신 같은 교리”, “손오공 요술 부리는 교리”라 비난하며 삼위일체를 부인할 뿐 아니라 “마리아의 월경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월경잉태론을 주장해 교계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킨 자칭 이단감별사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청문회 소환에는 응했으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에 대한 질의에는 끝내 해명을 거부했다.

한기총은 최근 성명에서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는 삼신론과 마리아 월경잉태론을 주장했으므로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7개 교단에서 들어왔다”며 “이에 임원회의 위임을 받은 질서위에서는 최삼경 목사의 글과 강의 내용 등의 모든 자료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심각한 이단이자 신성모독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원회는 21일 7개 회원교단 총무가 의뢰한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과 ‘월경잉태론’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 목사는 질서위가 준비한 19개 항목(삼신론 10개, 월경잉태론 9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 내용은 ▲‘세 영들의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하나님은 왜 세 분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세 분이라면 삼신론적 표현이라 생각지 않느냐 ▲삼신론과 월경잉태론으로 한국교회 신앙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마리아 월경 없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은 기독론적으로 이단적인 말이라는 말을 했는가 ▲

마리아 월경 없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통합총회 제96회 이단관련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에 월경잉태론 주장은 그리스도의 선재성과 신성을 약화시킨다는 뜻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이었다.

위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최 목사는 ‘청문회’라는 단어에 다소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으나, 한 위원이 “청문회는 글자 그대로 묻고 답하는 것일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정리하면서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됐다.

최 목사는 10여년간 한기총에서 이대위원으로 봉사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40-50분간 발언을 계속했고, 위원들은 최 목사의 발언이 끝난 후 최 목사에겐 준비된 질문서를 전

달하며 답변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최 목사가 답변하겠다고 하자, 위원들은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30분간 정회했다. 그러나 30분 후 최 목사는 돌연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한편 청문회에서 답변을 거부한 최 목사는 이후 청문회를 벗어나 별도의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진행하기도 했다.

최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본인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자로서 이단을 대적하도록 하겠다는 말이 된다 ▲이제 한기총 질서위원회는 본인에 대하여 연구하지 않았다 ▲본인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의 주장이요, 이미 교단에서는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 등을 주장했으며, 기자들과 문답을 하다가 곤란한 질문들이 이어지자 “한국교회가 이러면 망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퇴장했다.

이대웅 기자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WITH THE WORLD
UNIVERSITY & THEOLOGICAL SENIARY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NIARY
세계 90개국의 현지학생들이 수업하는 세계 최고 최대의 신학대학
유대인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 세계 최고 성서 신학자인 게리 코헨박사 (Dr. Gary Cohen)의 코헨학파를 형성하고 있는 코헨 신학대학교는 현재 전세계 90개 나라에 코헨선교 센터와 코헨신학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수: 4,450명 / 재학생수: 5,500명)
G-Vision 153 Global Mission 을 목표로 하며 비전 153이 완성되면, 기독교 유엔(CUN)을 설립하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현재 비전 153중 90개 나라 완성(60%달성)
학사: 신학, 교육, 음악, 선교, 상담, 복지, 스포츠
석사: 신학, 교역, 교육, 음악, 선교, 상담, 복지, 스포츠
박사: 신학, 교육, 음악, 선교, 상담, 복지, 스포츠
이사장 : Dr. Michelle Kang, D.C.E.
국제총장: Dr. Gary Cohen, Th.D.
대학원장: Dr. Ronald Vandermeij, Th.D.
교무처장: Dr. Sarah Kim, Th.D., Ph.D.
설립총장: Dr. Paul Kang, Th.D., Ph.D.
CUTS Main Campus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 / 전화번호 1-323-213-0364 (직통) 1-562-397-2121 / E-mail: cohenuiversity@hotmail.com / www.cohenuiversity.ac

153개 국가에 말씀 전수와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할 학교 설립 목표로 된 30년

삶의 현장에 발디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G-비전 153 글로벌 미션은 조직(Organization)입니까? 운동(Movement)입니까?

G-비전 153 글로벌 미션은 조직이면서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G는 God의 약자이며 이 운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말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짜고 실천해야 하는 과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일들을 보면 이것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놀라워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비행 마일리지만 따져도 지구 90바퀴에 해당하는 거리를 돌면서 이 비전을 향해 달려 왔습니다. 바로 전 세계 153개 나라에 코렌신학대학교의 현지 신학교이자 선교센터를 설립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153개를 모체 신학교라고 부릅니다. 그 153개 모체 신학교의 졸업생들이 자기 나라에 10개 이상 도시에 또 분교를 설립하면 총 1530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89개 나라 혹은 권역에 모체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권역 혹은 나라라고 하는 이유는 작은 나라의 경우는 몇 나라를 묶어서 모체 신학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모체 신학교들에서 10개 도시 개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 계산상으로는 890개가 세워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약 600개 가량이 세워졌습니다. 최근 모체 신학교가 세워진 곳에서는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아 분교 설립이 안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어떻게 태동이 되었나요?

저는 1975년 이민을 왔습니다.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며 18번 투옥되어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여러 정치적 이유로 인해 저는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한 국가독교총연합회 초대 대표회장이었던 박맹술 목사님의 조언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저는 한 국가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더 공부를 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유학 길에 올랐습니다. 미

국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낮에는 세탁소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영어공부를 해서 UCLA로 진학하고 공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 9월 5일 새벽 3시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교실

보는데 한 양탄자에 얼굴을 볼 수 없는 분이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분과 함께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각 나라가 착륙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세어 보니 총 153개였습니다. 바로 구

성도됨 자체가 이미 선교 사명 포함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선교 해야 할 때

에 있는데 흰 옷을 입은 12명이 저를 가운데 두고 "와이오델, 와이오델"이라고 외치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어디서 왔는가"라고 물었는데 그들은 "하박국에서 왔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아 꿈 속에서 "주여! 통역해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천둥벼락이 치는 소리가 들리며 천지가 진동하더니 "일어나라. 성경을 읽으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12명의 사람들이 스크림을 짜고 저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 버린 저는 손을 휘저으며 "나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별떡 일어나 책상 위의 성경을 펼쳤는데 마침 하박국 1장이 펼쳐졌습니다. 1장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2장 4절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이 성경에서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높은 하늘에 큰 글자로 보였습니다. 그걸 읽고 고개를 숙여 계속 성경을 읽어 내려 갔더니 14절이 또 다시 하늘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대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였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니 이번에는 "오직 여호와께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찌어다"란 구절이 또 다시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환상을 구원, 선교, 교회라는 내용으로 정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와이오델"이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란 뜻이란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환상을

원받아야 할 153개 나라였습니다. 그 분께서는 제게 "너는 이제 밭에 다디고 머리는 하늘을 보고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153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153마리 물고기에서 유래했는데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런 체험들에 근거해 저는 1982년 G-비전 153 글로벌 미션을 시작하게 됐고 내년이 30주년입니다. 현재까지 89개 나라 혹은 권역까지 이 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90번째 학교도 인도네시아 세마랑 시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목회 중인 배푸루스 아궁 목사는 제 제자인데 그는 교회를 개척한 지 19년만에 이슬람권인 그 나라에서 2만5천 성도를 가진 큰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이슬람권 전체를 선교하는 선교센터로 삼고 지도자들을 교육하려 합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 한 10여 차례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확산되는 속도나 규모가 상당히 놀라운데 다른 선교 운동과의 차이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첫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선교"를 지향합니다. 저는 이것을 제4세계 선교학이라고 부릅니다. 제1세계 선교는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뤄지던 외교교인 제2세계 선교는 예루살렘 외부로 나가기 시작한 선교입니다. 제3세계 선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3세계를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교회 기념티을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ESL...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건축설계...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의사보조... Medical Assistant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Accounting (AA Degree)
약사보조... Pharmacy Technician 그래픽,포토샵...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오전, 오후, 저녁
-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Advice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방문비자(B1,B2)를 학생비자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818.382.6000

Bus 20원 Lajolla Fairfax 맥도널드 Wilshire

상담필수 오전 8:30~1:30 한국인 상담 : 그레이스 직통 (213) 703-6863 (323) 966-5444

상담: 그레이스 (Grace)

가나안교회, 39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가져

이철 목사 “예배, 훈련, 선교, 교육, 구제에 더욱 매진할 것”



가나안교회가 39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20일 오후에 드렸다.

해외한인장로회 소속 가나안교회(이철 목사)가 창립 39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20일 오후 4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사회에 이철 목사, 기도예배 이선영 목사(열방인열린교회), 찬양에 연합성가대, 설교에 '안

수받는 마음'(딤후 1:3-8)이란 제목으로 김정찬 목사(서남노회장), 권면에 허명 목사(서남노회 중경노회장), 축사에 최명환 목사(서남노회 중경노회장), 기념품 증정에 황선철 장로, 인사에 홍순관 장로, 광고에 전홍권 장로, 축도에 김대순 목사(해외

한인장로회 중경총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가나안교회 이철牧사는 “주님의 몸 되신 가나안 교회의 창립 39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 드린다. 가나안 제단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펼쳐져 가는 교회라 되

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다운 교회로서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게 하고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가 더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니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민교회 역사상 결코 흔치 않은 ‘창립 39주년’이라는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박찬 회장과 감동으로 가득하다. 이 기념비적인 날에 가나안의 온 교우들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예배, 훈련, 선교, 교육, 구제의 5대 목표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해 본다”고 말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 땅 위에 참다운 천국의 모형을 제시하고, 성도들에게 안식과 소망을 제공하는 교회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의 일꾼들을 세운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임직하는 총 17명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일생동안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약속하게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복음방송사 오픈하우스 행사

前 임직원과 후원자들 초청해 감사 나눠



미주복음방송이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 좌측 세번째가 박신욱 사장

미주복음방송(사장 박신욱 목사)이 전 임직원과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오픈 하우스’ 행사를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개최했다.

오픈 하우스는 미주복음방송을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전 임직원과 후원자들을 초청해 함께 회사 업무현장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박신욱 사장

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까 생각을 많이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전 임직원들과 후원자들을 초청해 이 시간을 갖게 됐다”며 “여태까지 지켜 주셨고 앞으로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며 더욱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미주복음방송이 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미래 배우자를 찾기 위한 열쇠는 기도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박수웅 장로 초청 세미나 개최

토랜스제일장로교회(김준식 목사)는 지난 20일 오후 2시에 박수웅 장로(가정사역자, 코스타 강사)를 초청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애, 결혼, 성>이란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박수웅 장로는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세가지 만남이 있다. 첫째는 부모님과 만남, 둘째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셋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녀는 몇 명을 낳을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 기도한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바로 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로는 “배우자의 신앙과 건강, 지혜, 실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박수웅 장로가 강연을 펼쳤다.

요하다.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러지고 구하라고 한 것처럼 교회 청년부나 선교현장, 선교단체 등에서 다든지 기회를 갖고 구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대화 통하는 것이다”며 “데이트를 할 때 크리스천을 만나야 한다. 인간은 영, 혼, 육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영

을 알아야 한다. 나는 아내의 신앙 간증을 통해 ‘지난 6년 동안 기도하던 자매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로는 “영이 통하면 그다음은 정서적, 정서적으로 혼이 통해야 한다. 그 다음은 육이다. 그때가 되면 스킨십이 시작된다. 사랑하면 스킨십이 진행되지만 선을 넘으면 안된다. 그 선이란 상대방에게 성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성욕을 유발하는 데까지 가면 지나치게 간 것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장로는 “진짜 크리스천답게 데이트하고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신다. 순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나눔선교회, 이웃들과 교제의 시간

한영호 목사 “받은 사랑 돌리고 나눠야”



나눔선교회는 18일 저녁에 이웃초청 감사예배를 갖고 이웃들과 교제를 나눴다.

나눔선교회(한영호 목사)에서 이웃들을 초청해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18일 오후 6시에 가졌다.

이 선교회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마다 선교회 부근 지역을 청소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웃들을 초청해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류를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한영호 목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 작은 모임을 마련했다”며 “저희도 선교회를 운영

하는 데 있어 여러 도움을 받고 있는데, 받은 만큼 나눠야 한다는 동기로 이 행사를 수년 전부터 시작했다. 한인과 히스패닉이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면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는 모임이다”고 말했다.

나눔선교회는 마약과 알코올 등에 중독된 청소년들에게 악물 예방 교육, 세미나, 간증, 기독교 교육 등을 통해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며, 약물 중독과 마약 퇴치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KCCD “이웃들에게 사랑 나눠요”

추수감사절 맞이해 목회자와 이웃들에게 터키 증정식

KCCD(Korean church for community development, 한국 기독교 커뮤니티 개발협회, 한해빈 회장은)는 추수감사절 사랑의 나눔 행사를 17일 오후에 코리아타운 세라노와 3가사에서 갖고 목회자들과 이웃들에게

터키 한마리 썸을 선물했다. 이 행사는 John Perez 거주 상원의원 의장과 KCCD에서 후원했다. KCCD 이사장 박종대 목사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권사님 두 분으로부터 터키를 과분하게 대접받

은 적이 있다”며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대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돼서 행사를 준비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130 Wilshire Bl. #405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메시야 연주회

지 위: 송규식
소프라노: 김선영 지 경
알토: 주영숙
테너: 오인석 안정권
바리톤: 권양욱
피아노: 황인교
오르간: 최연진

합창: 메시아코랄
연주: 올리브오케스트라

**일시: 2011년 12월4일(주일)
저녁7시30분**

**장소: Anaheim First Church of Nazarene
세살교회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5**

주최: 남가주목사회

주원: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관: Holy Voice Mission
세살교회

축복받은 광야 미국 어제와 오늘에서 미래를 본다

얼바인 한민음교회, 최상준 담임목사 강의 아래 4주간 진행



이날 세미나에는 150여명의 성도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얼바인에 있는 한민음교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축복받은 광야, 미국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 강사는 담임목사인 최상준 목사다.
“왜 뜬금없이 교회에서 미국 역사와 사회에 대한 강의를 하나”라는 질문과 함께 “담임목사가 어떻게 이런 분야에 강의를 하나”라는 질문도 들 법하다. 그러나 이런 의아함은 강의를 듣다 보면 당위적 경제로 바뀌게 된다.

미국은 분명 축복받은 나라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곳은 광야였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미국은 황폐한 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미국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복된 땅이 되었다.
문제는 그 축복받은 광야였던 미국이 다시 광야로 회귀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문제를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명함을 통해 미국에 주어진 영적 의미, 그 안에 살고 있는 한인

성도들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다. 교회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셈이다.
미국의 역사를 기독교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이 일에 나선 강사 최상준 목사는 사회과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템플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UCI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런 경력으로 그는 미주의 유수 기독교 대학들에서 강의를 10년

간 했다.
4주동안 이뤄지는 세미나 일정 중 첫날인 11월 20일 강의는 바로 우울한 미국의 모습을 조명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 강의에서 최 목사는 미국의 범죄율과 자살율, 중독증과 성매매, 학대와 가난 등에 대한 암울한 통계를 갖고 나왔다. 그는 미국의 현 주소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세미나를 연 것이다. 그는 사회과학을 연구한 학자답게 미국의 사회 현상에서 문제점을 발견, 나열한 후, 목사답게 이를 해결할 해법의 단초를 성경과 신학에서 도출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미주 한인들이 갖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우리보다 먼저 이 광야에 도착했던 이들의 위대한 꿈을 우리도 꾸어 보자”고 권면했다.
그는 11월 27일에는 광야에 심겨진 정교도, 12월 4일에는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12월 11일에는 광야에서 다시 축복의 땅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간다.
첫 강의를 들은 한 성도는 “바쁜 이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잊어 버렸던 미국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 목사는 “미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운동, 개척운동 등 여러 가지가 논의되지만 저는 그 답을 역사에서 찾아 보려 한다”며 “이 행사가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미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발전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규 기자

세시봉과 함께 사랑 콘서트

청년들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세시봉이 함께 한다.
오는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샌디에고에서 열리는 미주청년학생 선교대회(GKYM VISION Conference)를 위해 세시봉의 윤형주, 김세환 씨가 나선다. 그들은 12월 4일 저녁 7시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 “세시봉 친구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콘서트의 수익금은 전액 청년학생선교대회에 기부된다. 보통 세시봉이라 하면 청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며 그들을 따뜻한 추억 속으로 잠겨 들게 하는 가수들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콘서트에서 그들은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세시봉의 이런 뜻에 찬양사역자 최명자 사모도 동참하기로 했으며 남가주 지역을 대표하는 연주자들도 선뜻 돕기로 했다.
이 공연은 세시봉의 명곡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이 어우러지는 집회로, 이웃이나 불신자들에게 좋은 전도 기회도 될 수 있다. 청년학생선교대회 관계자는 “대회 후원을 위한 ‘세시봉 친구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사랑이야기 콘서트’를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참석한다면 의미있고 훈훈한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를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추천했다.
이인규 기자

돌로스교회 임직감사에배 드려



예배를 드린 후, 담회원 부부와 임직자 가족들, 첫째째 조족 세번째가 담임 서보전 목사

11월 20일 가디나에 위치한 돌로스교회(담임목사 서보전)가 설립 12주년 및 임직감사에배를 드렸다.
교회가 소속돼 있는 제외한인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아메리카노회 목회자들이 주요 식순을 맡은 가운데 기도를 임순중 목사(예수세계선교교회), 설교를 송환규 목사(뉴해본장로교회), 권면을 김선진 목사(광명교회), 축사를 석종민 목사(한누리교회)가 맡았다.
이날 노일철, 현종배 안수집사가 임직했으며 오홍실 권사, 김양민 명예권사가 취임했다.
이들은 모두 이민온 후 돌로스교회에 인도돼 교회에서 훈련받은 성도란 점에서 교회는 더욱 큰 축제를 분위겼다.
돌로스교회는 1999년 11월 21일, 목회자와 불신자 한 가정이 함께 히스패닉 교회의 한 하나를 렌트해서 예배 드리며 개척이 시작됐으며 현재의 교회로 이전하고 건물 구입과 성전 리모델링을 거쳐 교육관을 건축하는 등 빠른 속도로 부흥, 성장해왔다.
주소는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이며 전화번호는 310-951-3153다.
이인규 기자

PHOTO NEWS

남가주한인목사회 제45회 정기총회

남가주한인목사회 제45회 정기총회가 지난 21일 풍성한교회에서 열렸다. 이 총회에서는 김영대 목사가 새 회장에, 김영모 목사가 수석부회장에 추대됐다. 이번 총회를 마치고 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중부교협 제28차 총회 열린다

남가주중부교협협의회(회장 용장영 목사)가 오는 12월 5일 오전 11시 라팔마연합감리교회(김도민 목사, 8111 Walker St., La Palma CA 90632)에서 제28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28대 회장과 임원진을 구성하는 한편, 중부 지역 한인교회들의 연합을 위한 각종 안건들이 논의된다.
중부교협 관계자는 “중부 지역의 모든 한인교회들에 부흥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밝혔다.
문의) 총무 전동은 목사
714-904-6298

빅토밸리 지역 40일 대각성 기도회 은혜 넘쳐

지난 10월 10일부터 빅토빌 예수마음교회에서 시작된 빅토밸리 지역 40일 대각성 기도회가 11월 8일 끝났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8시, 토요일과 주일에는 오후 7시에 시작된 기도회는 성경 말씀 통독, 주제 찬송, 주제 기도, 특별 영성물 시청 등 다양한 순서를 통해 성도들이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존 파이퍼, 존 맥아더, 풀 위저 등 시대를 대표하는 교계 지도자들의 짧은 동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은혜를 더했다.
김성일 담임목사도 매일마다 그 날과 관련된 주제를 놓고 메시지를 전해 성도들에게 영적 도전을 더했다.
이기간동안 위암 말기 환자의 암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성도들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김 목사는 “홀로 이 40일간 기도회를 인도하며 육체적으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이런 기적들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예수마음교회는 기도회 기간 중 10월 30일 종교개혁주일에는 교회 이전감사에배를 드리는 기쁨도 맛보았고 11월 11일에는 로즈볼 기도회에서 미국을 위해 기도하기도 했다.
13일부터는 성도들의 간증시간을 기도회 순서에 넣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인규 기자

세제가 없는 세상 **별난 다용도 이온수기**

멀티 이온아이스저가 열어갑니다.

오염된 물 ➡ 멀티이온아이스저 환경을 살리는 물

멀티이온아이스저 제품 특성

- 물절약 및 환경보호
- 비누 없이 샤워 및 목욕
- 야채 과일농약 및 중금속 해독
- 화장실 냄새 제거 및 살균 효과

멀티이온아이스저 적용 사례

- 탁월한 분해력(세척력, 용해력)
- 고급양복
- 피부보호 및 미용효과
- 부인병 질환

멀티이온아이스저 제품군

비타민 C 샤워기

샤워물 속 염소로 인해 손상된 피부와 머리결을 비타민 C 샤워기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복시켜드립니다.

*** 비타민 C 샤워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 Ⓜ 아토피성피부, 손상된 민감한 피부
- Ⓜ 건조 피부, 가려움이 있는 피부
- Ⓜ 물속의 염소로 인하여 생기는 비듬 방지
- Ⓜ 염색한 머리결과 손상된 머리결 보호
- Ⓜ 연약한 아기피부 보호
- Ⓜ 애완동물 피부와 모피 보호
- Ⓜ 30%까지 절수가 가능한 매카니즘

설치와 사용이 간편하고 샤워 마사지 필터 교환이 쉽고 저렴.

엄격한 품질관리 (ISO 9000)와 미국 품질 규격인증 (UPC마크) 획득

아리랑이온 USA TEL : 323-930-1820 / 1032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한인 시니어 메디케어 우대 플랜



시니어 서비스의 종합백화점
GIANT Senior Services
 Medicare • Long Term Care • Final Expenses



한솔 자이언트 시니어 서비스

시니어분들을 위해 메디케어관련 건강보험, 은퇴설계및 장례보험, 장기간호 보험혜택등 시니어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수많은 행정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두 회사의 장점을 합하여 종합적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일대일로 직접 만나서 메디케어는 물론 시니어 전반에 대한 모든 궁금한 것을 직접 상담하실수 있도록 Open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 전화는 (213)487-4900 이나 (213)380-9801이며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Medical과 Medicare 플랜소지자들의 문의도 환영합니다.

Anthem Regional PPO 플랜(RPPO)을 가지고 계신 연장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작년부터 현재 가입하신 Anthem Regional PPO Plan을 가지고 계신 가입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반드시 같은 회사인 Anthem Local PPO (LPPO) Plan으로 변경하십시오 계속 Medicare Advantage Plan (우대보험)의 혜택을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한솔보험과 월셔제이박보험이 공동으로 한인 노년분들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고객들은 두 회사가 제공하던 시니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 하시는 한인 노인분들께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고 정보를 제공하는 한솔 자이언트 시니어 서비스 로 문의하여 보십시오.

행복인생은 65세부터라는 모토로 한솔자이언트에서는 메디케어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메디케어 우대플랜 변경 및 가입기간입니다. 메디케어 우대플랜 (파트 C) 가입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HMO, PPO등 자세한 설명과 유익한 정보제공 그리고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소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께서 참석 하시길 바랍니다.

메디케어 설명회

일시: 2011년 12월 5일 (월) 오전 11시
 장소: 라팔마연합감리교회 (김도민 담임목사)
 주강사: 황선철, 김형중, 박상준
 주소: 8111 Walker St., La palma, CA 90632
 연락처: 626-253-3204



메디케어 세미나 안내

7차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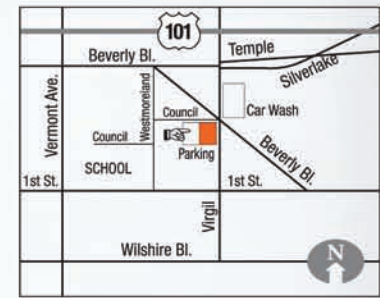
● 일시: 2011년 11월 26일 (토) 오전 10시~ 12시
 ● 장소: 한솔보험 본사

8차 세미나

● 일시: 2011년 12월 3일 (토) 오전 10시~ 12시
 ● 장소: 한솔보험 본사

9차 세미나

● 일시: 2011년 12월 10일 (토) 오전 10시~ 12시
 ● 장소: 한솔보험 본사



3598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전화 문의

213-487-4900
213-380-9801



김형중
 Hyoung Joong Kim
 총괄 부사장
 Cell: (213) 769-9463



김선화
 Sunhwa Kim Foreman
 Diamond Bar 지역
 Cell: (909) 731-3091



김정욱
 John Kim
 San Diego 지역
 Cell: (858) 204-4856



민선희
 Sonia (Sun Hee Min)
 Valley 지역
 Cell: (213) 700-1098



김명신
 Myung S. Kim
 South Bay 지역
 Cell: (310) 720-0134



정찬열
 Chan Yul Jung
 Orange County 지역
 Cell: (714) 530-3111



박상준
 Jay Park
 대표
 Cell: (213) 507-9801



황선철
 William S. Hwang
 CEO / 대표
 Cell: (213) 249-0703

분열과 갈등 획책 행위, 정관에 따라 처리

한기총, 통합측 등 일각의 비방전에 성명 발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교계에 소모적 비방전이 난무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자연 목사·사진)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기총의 위상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교계의 분열과 갈등을 획책하는 행위에 대해 엄히 경고했다.

한기총은 이날 오전 긴급 임원회를 갖고 수권위원회에 위임해 회원 중 60개 교단과 17개 단체 명의로 장문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는 특히 최근 통합측을 비롯한 일부 교단들이 집행위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정관 개정 등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한 한기총의 입장을 담았다. 최근 한기총을 비난한 교단들은 성명 명단에서 배제했다.

한기총은 먼저 정관 개정에 대해 "시대적 요청이었으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기총은 "모든 논의의 과정에서 찬반 양론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특히 통합측의 경우 집행위에서 박 위근 총회장, 조성기 사무총장, 우영수 서기, 문원순 목사 등에게 모두 발언권을 주어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붙인 결과 총 143명 중 찬성 121명 반대 12명으로 통과됐던 것"이라며 "이는 한국교회에 얼마나 정관의 재개정을 원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기총 대표회장 김자연 목사

한기총은 먼저 정관 개정에 대해 "시대적 요청이었으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기총은 "모든 논의의 과정에서 찬반 양론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특히 통합측의 경우 집행위에서 박 위근 총회장, 조성기 사무총장, 우영수 서기, 문원순 목사 등에게 모두 발언권을 주어 의견을 들은 뒤 표결에 붙인 결과 총 143명 중 찬성 121명 반대 12명으로 통과됐던 것"이라며 "이는 한국교회에 얼마나 정관의 재개정을 원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직전 대표회장(통합측)의 강력한 주장에, 불가피하게 국장들만 해임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교단들이 한기총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서는 "한기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성명서에 명단이 포함된 교단들 중 기하성(여의도)측 이영훈 총회장은 '외국에 나가 있었기에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백석측 유종현 총회장도 '성명 내용에 동의하지 않고 현재의 한기총의 노선을 존중한다'고 했다. 고신측 임종수 사무총장은 "같은 교인이 임원회에서 논의된 바 없었고, 개혁측 황인찬 총회장은 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의사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마지막으로 "일부 인사와 반기독교 세력은 1년 내내 한기총의 거목성을 훼손하고 주도권 싸움을 벌였을 때 6억원 수준인 반면, 한기총 총 직원 연간 인건비가 약 6억 1천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약 6억 7천만원에 달했다. 이 기형적 구조로 인해 한기총이 만성 적자에서 시달려 왔고, 역대 대표회장들은 자금 총당으로 허송세월을 하기 일쑤였다. 한기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제를 효율화했다. 이 과정에서 해임받은 피하러 했으나, 국장 3명과 총무는 무조건 해임해야 한다는 이광선

내 신학교 5년은 최악 거품 속에서 성경 잊어

베스트셀러 목회자 프란시스 첸 리버티대학에서 강연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목회자인 프란시스 첸 목사가 지난 14일 기독교사학인 리버티대학교에 초청받아 설교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는 "기독교의 거품을 제거하고, 성경적으로 살도록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강조하면서 "내가 기독교 대학에서 보낸 기간은 우선으로 가득찬 시간이었다"고 고백해 충격을 줬다.

첸 목사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삶의 도전을 경험했는지를 나누면서, 고등학교 시절 "왜 교회는 살도록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강조하면서 "내가 기독교 대학에서 보낸 기간은 우선으로 가득찬 시간이었다"고 고백해 충격을 줬다.

신학교에서의 경험을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해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내 인생 최악의 5년이었다"고 회고하며 첸 목사는 "학교의 문에 있는 거품을 제거하고 세상과 소제였다"고 말했다.

첸 목사는 캘리포니아주 마스터스 칼리지에서 학사, 마스터스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다.

그는 "기독교 문화의 거품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하면서 내면적 평화의 결핍으로 이어졌다. 내가 즐겁게 생활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대학생활을 굉장히 즐겼으며, 기독교 활동도 많이 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또 "돌아보면 내 인생에 매우 신기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완전한 위선의 시간이었음을 나는 알고 있다. 세상적인 유행어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만 진정한 나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다.

첸 목사는 6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며, 2004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효과적인 전도자들을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바이블칼리지(EBC)를 설립하기도 했다.

EBC 웹사이트에서 쓴 글에서 첸 목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이고, 충족되지 않는 것을 좇으며 살을 낭비한다. 대학시절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 적당한 훈련은 우리를 지루함에서 구해준다"며 "우리의 사명은 교육을 넘어 제자양육이다. 우리의 비전은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배울 뿐 아니라 그들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배우길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 되길 원한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이 도전을 받을 세상적인 배경에 학생이 놓이길 원하고, 전후 속을 뚫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란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핵심은 제자훈련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정교회 가톨릭 OC교구에 5750만불에 매각

가든그로브 수정교회 부동산이 가톨릭 OC 교구에 매각된다.

17일 샌타에나 연방 파산법원 로버트 판 판사는 수정교회 부동산의 바이어로서 가톨릭 OC교구를 최종 결정했고, OC교구는 총 5,750만 달러에 수정교회 본당과 부속건물을 매입하게 됐다.

OC교구와 함께 매입 경쟁을 벌였던 챔먼대학교에 대해 교회 창립자인 로버트 H. 솔러 목사(85세)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챔먼대학교에는 건물을 팔 생각이 없다"고 명시하며 "언젠가 비종교적인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OC교구 측은 수정교회에 제시한 매입 조건에 교회 기존 시설을 최대

한 보존하는 한편, 도서관과 방문센터를 만들어 수정교회 창립자 로버트 솔러 목사의 업적을 널리 알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솔러 목사의 딸이자, 현재 수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폴맨 목사는 성명서에서 "가톨릭에 건물을 매각하는 것이 매우 마음이 아픈 일"이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시간은 충분히 있다"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매각이라는 이름 아래, 수정교회는 건물의 대부분을 재입찰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하게 됐고, 앞으로 3년 내에 새 건물을 찾아 이전해야 한다.

수정교회 교인인 밥 캔필드 씨는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교회 행

정교회는 작년 10월 파산 신청 이래로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지불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예배당 가운데 하나인 수정교회 본당 건물은 그 이름처럼 은몽 유리로 뒤덮인 벽면과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권나라 기자

정우위원회의 결정은 우리의 사역을 찢어놓고 있다"며 "결국에는 모두 문제인데, 그걸로 인해 교인들은 사역을 잃게 됐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로버트 H. 솔러 목사가 설립한 수

씨앗 The Seeds

우리 함께 주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전도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읍시다.

언제: 12.3 토 6:30pm

어디서: 하나인 교회 Hanain Community Church

1323 Magnolia Ave, Monrovia, CA 91016 / (818)395-3526 / www.hanain.org

Dr. Newman
(아주사 신학교 교수)

담임목사 김창군

God's Image Ministry

록밴드 Cravin리더

<1부> 만남의 기쁨

- 섹스폰리스트-심상균
- 피아노 찬양 싱어-Joseph Kim
- God's Image 뮤지컬팀

<2부> 복음 동네 이야기

- 바이올린리스트-박예슬
- 복음 동네 소식-김창군 목사
- 축복의 말씀-Dr. Newman
-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됩니다

몬노비아 소재한 하나인 교회는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마태복음 13:23의 씨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몬노비아를 시작으로 남가주 전역에 '전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씨앗 The Seeds I'- 하나님의 성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목회자, 혹은 성도로부터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났거나 정착하지 못하고 Sunday Christian으로 영적인 침체현상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인 교회는 이 모든 분들을 섬기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1부> 만남의 기쁨 - 분위기 좋은 저녁식사와 함께 섹스폰, JOSEPH KIM(CRAVIN리더)의 피아니스트의 연주/찬양과 God's Image 뮤지컬팀의 공연이 있습니다.

<2부> 하나인 교회 담임인 김창군 목사의 복음 동네이야기, 교회 소개와 아주사 신학교 대표교수이자 미국선교사자녀로서 한국문화와 한인신앙을 리더하고 계신 Dr. Newman 목사님을 모시고 '올바른 교회상'의 청사진을 보는 귀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연말에 온가족이 함께 주님의 두 손을 꼭 잡고 "전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 꼭 참석하셔서 참된 복음으로 삶과 가정에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는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담임, 김창군 목사 818-395-3526)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2011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미 서부 침례신학교
 I-20 발급, 장학금 및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가능
 1월과 6월 2주간 집중 강의로 3년 내에 D.Min. 취득 가능
 GTU, UC Berkeley로 대학원 과정 수강 및 Ph.D. 수학 가능
 M.A. in Community Leadership는 평신도 지도자 프로그램

760 South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00-2592 / baptistbob@verizon.net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섰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org



Solution for Tomorrow

LASERVISION WORLD
www.laservisionworld.com

<p>shure mx418/c / 18" 김대상 마이크 \$199.00</p>	<p>earth work Cardoid 김대상 마이크 FM500 / 19in \$499.00 FM720 / 27in \$499.00</p>	<p>shure Cardoid 무선 썬 마이크 WL 184 : 115 degree \$106.00 WL 185 : 130 degree \$107.00</p>	<p>shure ppx24/sm58/ 무선 마이크 핸드 타입 세트 \$399.00</p>	<p>sennheiser 유선 마이크 e835 three pack \$229.95 e835 single Handheld mic \$83.00</p>	<p>Roland KC-350 4-Channel 120w Stereo Mixing Keyboard Amplifier \$499.00</p>	<p>countryman EGI Directional earset mic / 무선 이어셋 마이크 \$449.00</p>
<p>Microboard CD/DVD Duplicator QD-DVD-125 \$519.00</p>	<p>Keyboard Instrument cable \$4.99 ea \$39.99 with 10ea</p>	<p>bose ds16f / 천장 스피커 \$79.00</p>	<p>superlux hd661 / 헤드셋 헤드폰 \$49.00</p>	<p>ebtech HE-2-XLR (HJM ELIMINATOR) (2 ch box w/XLR) 임/도이지 제거기 \$84.99</p>	<p>sabin fbx1020 FBX Feedback Exterminator: 피드백 제거기 \$329.99</p>	<p>hosa cable MMK-025AU / 25ft 마이크 케이블 \$29.99</p>
<p>Sanyo PLC-XU4000 / 4000 Ansi 프로젝터 \$1,098.00</p>	<p>Benq SP-920P / 6000Ansi 프로젝터 \$2,999.00</p>	<p>Dalite Portable 100" Screen 90618 이동용 100인치 스크린 \$199.00</p>	<p>25ft VGA Cable / 프로젝터 & 컴퓨터 케이블 \$15.00</p>	<p>MHP-20 / 프로젝트 미온트 \$47.00</p>	<p>Telex SM-2 Telex SM-2 - Personal Listening System - A (sets of 4 users) 동시사용기 세트(4인 기준) Call for Price</p>	<p>beringer f1220A Power Monitor / 파워 모니터 EQ & Active Monitor, EQ and volume. 125W \$217.99</p>
<p>Music Stand / 보편대 \$34.99</p>	<p>whirwind Director / DI-BOX \$61.02</p>	<p>American DJ PAR CAN 56 Combo 조명 파란 콤보 키트 \$59.95</p>	<p>Numark MP-102 CD player \$199.00</p>	<p>Elation ELED DW PAR 56 / LED 조명 \$369.00</p>	<p>Elation DLED 36 TriBrick / LED 조명 \$499.00</p>	<p>Ushio 조명 램프 for Source4 & Opti Par HPL 120V-750WX \$23.00 HPL 120V-757WX \$23.00 HPL 120V-375WX \$23.00 HX601 115V-757WBM \$25.00</p>
<p>Yamaha DXPV V-Drum \$899.00</p>	<p>Yamaha S90XS Keyboard \$2,299.00</p>	<p>Yamaha MotifX7 76-key FSX action with initial and aftertouch \$2,999.00</p>	<p>Behringer XENYX X1204USB 12-Channel USB Mixer with Effect \$196.99</p>	<p>Behringer XENYX 1204 \$98.99</p>	<p>Edrol V-4 Video Mixer \$1174.95</p>	<p>Projector Lamp REPLACE Projector Lamp, Sanyo, Sony, Eki, Panasonic, etc... Call for Price</p>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
메디케어

현재 5 후원

We know Medicare

2012년 당신의 메디케어 신청에 관한 정보

안녕하십니까?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의 대표 DAVID KANG 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시니어분들의 성원으로 한인 시니어들에게 메디케어에 대한 도움을 드리게 되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희 HANA는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65세 이하이지만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보다 나은 MEDICARE 보험의 혜택을 위해 메디케어 플랜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또한 교육 되어진 그리고 자격증을 갖춘 소수의 에이전트로 현재 LA, BUENA PARK, TORRANCE, SOUTH BAY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명은 많은 한인 노인 이민자들에게 도움되는 회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회사, 하나님이 주신 회사입니다.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 보험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 INC 에서는

1. 65세 한인 시니어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자격을 갖추신 분에게(시민권자, 영주권자, 메디칼 세금 10년 보고), 메디케어는 65세 되는 생일 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연방 정부 건강 보험입니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까지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못하셨다면 HANA가 여러분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2. EXTRA HELP PLAN 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엑스트라 헬프 플랜이란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을 위한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지만 자산이 \$25,260 (부부), 독신의 경우 \$12,260 이하이거나 부부 소득이 한달 \$1225에서 \$1669 사이인 경우, 독신의 경우 \$908에서 \$1225 사이의 소득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입니다.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메디칼 수혜자와 동등하게 처방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의 재산과 몇가지 조건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3. MEDICARE SAVING PROGRAM (MEDICARE PREMIUM ASSISTENT PROGRAM) 의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메디케어 수혜자 중에서 메디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소득인 시니어를 위해 메디케어 파트 A 와 B 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의 소득/달과 자산에 따라 지원받는 수준이 조금씩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소득이 독신의 경우 한달 \$908.00 부부 \$1226 이거나 최대 독신 \$1228 부부 1655 까지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단 개인의 자산과 몇가지 조건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4. MEDICARE PART D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분은 반드시 신청 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 되며 그 벌금은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에 별도로 평생 부과 됩니다.

5. MEDICARE PART C 프로그램의 선택을 도와 드립니다.

메디케어 파트 C 는 연방정부에서 운영 관리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메디케어 수혜자가 매달 지불하는 메디케어 보험료와 메디칼 세금을 정부에서 승인 한 건강보험 회사나 일반회사에 메디케어 수혜자의 의료혜택을 이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건강보험 회사는 고객 유치를 위해 원래의 메디케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80% 보험 보장의 부족분 20%를 보충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치과, 안경 등등) 메디케어 수혜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추신 에이전트를 통하여 (SHIP 시험 통과 여부 그리고 보험제공회사의 자격시험 통과 여부)를 확인 하신 후 각각의 개인에게 가장 적당한 플랜을 선정 하여야 합니다.

6. 메디케어 파트 C 보험 가입시 메디케어 수혜자가 확인하여야 될 사항

- ▷ 보험에이전트의 자격 여부, AMERICA HEALTH INSURANCE PROGRAM, 시험 통과 확인, 각 보험회사의 자격시험 통과 확인, 반드시 계약서에 보험 에이전트 본인의 이름과 회사 코드기입을 요구하십시오.)
- ▷ 건강보험(의료비에 대한 보장)회사의 규모와 역사 혹은 CREDIT RATE를 확인 하시면 플랜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예: 회사의 역사 100년 혹은 미국전국 NETWORK 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

- ▷ 현재 본인이 복용하는 약의 보험보장과 본인부담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재 담당 주치의가 보험플랜 서비스 제공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현재의 주치의가 소속된 보험 플랜을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 ▷ 병원선택은 어떤 병원이 보험플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CLA, USC, GS, SV등등)
- ▷ 보험플랜의 가입시 일차병원 방문시 환자가 내어야 될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부터 \$15 까지 플랜에 따라 다양 합니다.)
- ▷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의 가입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을 확인하십시오. (말이 아닌 시료상의 증명)
- ▷ 추가 혜택 치과의 경우 그 보험 치료의 보장 범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 HMO 플랜의 가입시 타주의 친지 방문, 혹은 여행중에 그 보험이 보장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보조 플랜 가입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TRA HELP, MEDICARE SAVING PROGRAM 가입여부 확인).
- ▷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가진 분들은 2011년10월달 부터 발생하는 메디칼 보험의 의료 혜택의 축소로 인해 병원 방문이 년 7회로 제한되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의 가입시 어떤 플랜으로 가입하여야 기존과 똑같은 혜택 (병원방문의 제한이 없고, 본인부담금을 없는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2012년 변화되는 메디케어 플랜과 메디칼에 따라 보험수혜자가 숙지하여야 될 사항

- ▷ 2012년 메디케어 파트C 플랜은 각회사에 따라 그 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플랜은 그 보험 플랜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회사로 부터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시거나 보험 에이전트에게 연락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중 캘리포니아 전지역을 보장하는 PPO 플랜은 2012년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PPO 플랜에 가입 하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에이전트에게 연락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메디칼 건강보험 혜택 축소 : 2011년 10월 1일부터 메디칼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1년에 병원이나 의사 방문이 7회로 제한이 됩니다. (단, 의사의 판단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은 의사의 허가서가 있으면 7회 방문에서 면제됨) 또한 2011년 11월 1일 부터는 병원이나 의사 방문시 \$5를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병원 입원시 1일 \$100 최대 \$200 까지 지불 하여야 합니다. 처방약 구입시 본인 부담금이 최저 \$3-\$5 까지 인상 되었습니다. 감기약 기침약 건강보조약품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CALIFORNIA STATE BUDGET 2011-2012, 제정안) 이 예산안 축소는 메디칼과 메디케어 동시 수혜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 ▷ 메디칼 만 가지신분 : 반드시 각 카운티에서 보내주시는 보험 관련 서류에 본인의 지정 의사를 정하여야 합니다. (예 LA COUNTY, LA CARE 혹은 HEALTH NET). 지정의사를 정하지 않을 경우 다니던 의사가 진료를 거부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 ▷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수혜자도 7회 병원방문의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메디칼에서 지정하는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하시거나 (LA CARE, OR HEALTH NET) 혹은 메디케어 파트C (HMO OR PPO)프로그램에 가입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 메디칼과 메디케어 수혜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추신 에이전트와 회사를 통해 DSNP 에 가입 하시면 이전과 같이 병원방문의 제한없고 본인 부담금없으며 치료혜택과 안경, 그리고 의료기구등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추가하는 플랜이 있습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고객서비스 1-855-386-3088 Fax, 213-386-3992

※ 토요일과 일요일은 예약하시면 상담합니다.

LA 사무실



PRESIDENT :
DAVID KANG Lic.#0F16211

Tel. 213-500-4563

3600 WILSHIRE BL #1620,
LA, CA 90010

* DAVID KANG 이 월, 화, 수 근무합니다.

TORRANCE 사무실



DISRICT MANAGER :
SARA IM Lic.#0F07269

Tel. 310-702-7003

20695 WESTERN AVE #240,
TORRANCE, CA 90501

* DAVID KANG 이 목요일 근무합니다.



PRESIDENT :
DAVID KANG Lic.#0F16211

Tel. 213-500-4563

2350 W SEPULVEDA BLVD #A,
TORRANCE, CA 90501

* DAVID KANG 이 금요일 근무합니다.

BUENA PARK 사무실



DISTRICT MANAGER :
MI YOUNG HONG Lic.#0672051

Tel. 714-715-6345

6011 ORANGETHROPE AVE #A,
BUENA PARK, CA 90620

저희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광고의 무단복제는 금합니다. 상기의 정보는 특정 상품의 광고가 아닌 시니어 건강보험에 전반적인 교육자료입니다.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산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일합석예배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미찬양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집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월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그레이스웨이버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영아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재지훈련 오전 9:30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T. (714) 699-0210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담임: 윤선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2부예배 오후 1:15
 3부일민예배 오후 2:00 중교 일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제자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자녀기도회(월-목)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6:00
 청년·대학부 주일예배후
 4063 Ingraham St LA, CA 90005 (필서파크초등학교교당)
 T. (213) 550-7377 / www.lahopecchurch.com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남가주광명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제자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오후 7:30,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213)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더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교등,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아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철 목사, MARY KIM 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EM워십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1234 W.7th St. LA, CA90017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당)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당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아) 오전 9:45 중교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돌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1부 예배 9시, 2부 11시 금요성경(월-토): 오후 8:00
 중교등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예배: 오후 6: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라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아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rah 저녁 7:30
 중교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714)999-9900/http://www.visioncc.org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 예배: 오전 7:30 4부 예배: 오후 1:0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환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운터 4기 Crocker St.)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오후 12:15, 2:00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995-2868 / F.(714)995-0169

씨너지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 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영아예배 오전 10시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아) 오후 12:3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6: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www.kccroc.com

요셉선교회
 담임: 정상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90006
 T. (213) 245-4090

월셔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384-4272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박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7:30(토)
 1818 S. Western Ave., suite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중교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월로우십)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영오 12:30(만남)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LA 만나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2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SAM care international
 대표: 박세록 장로
 '말씀건너세대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삼삼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1309W.Valencia Dr. Unit #K,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Lavish의 사랑과 감사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을 받게 하였는가(개역개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라"라는 최상급 감탄사를 사용해야만 했던 사도 요한의 붓의 힘이 느껴진다. 이 서신을 쓸 때 즈음에는 이미 90세 노구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을 사도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덤덤하게 표현할 수 없어, 여전히 뜨거운 피가 끓는 젊은이의 어휘로 "보라"를 외친다.

영어성경(NIV)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표현을 'lavish(레비쉬)'라고 쓰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은 그저 동냥 수준이 아니라, 최선을 주셨다는 의미이다. 줄 수 있는 최고를 주셨다는 뜻이다.

만약 우리가 길목에 서서 구걸하는 무숙자라면, 우리에게 당신의 지갑을 열어 모든 현찰을 비어 주셨다는 뜻이며, 옆에 동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갑에 들은 현찰도 싹삭건어 주셨다는 뜻이며, 거기에다가 크레딧 카드까지 뽑아서 맡겼 금이라고 주셨다는 뜻이다.

아니 레비쉬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그 이상일 것이다. 자동차 열쇠에 자동차까지 주고 자기는 발이 부르뜨도록 걸어서 집에 간다면 겨우 그 단어의 의미에 접근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숙자같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자동차를 그냥 받는 것이라든 "보라"라는 극치의 감탄사를 수백 번이라도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레비쉬'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시신 사랑이었다. 우리는 대체 '보라'를 몇 번이나 외쳐야 그 고마움이 표현될까?

이번 감사절에는 가정마다, 최고의 감탄사가 나오는 레비쉬의 감사로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나는 집으로 가는 길목에 늘서 있는 무숙자들을 보곤 한다. "돈을 주면 심중팔구 마약을 사 먹으니, 동냥을 안 주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지만, 가끔 차 안에 잔돈이 있으면 창문을 내리셔서 그들에게 주곤 한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말한다. "You're a good man. God bless you.(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겨우 1불을 주고 듣는 말치고는 오히려 빛진 기분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주면서도 나는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준 적이 없다. 주더라도 잔돈을 주지, 내 지갑에 있는 뽀뽀한 20불짜리 몇 개를 뽑아 준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옆에 동승한 아내의 지갑까지 뒤져서 무숙자에게 내가 가진 모든 현찰을 내어준 적은 더군다나 없다. 거리의 무숙자들은 나의 최선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아니, 돈을 많이 주면, 그 돈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기껏해야 마약이나 사먹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최소한 주어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1.2불에 "갓 블레스 유"를 서너 번 들으면서 당연한 듯 생각했을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개역개정).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라"라는 최상급 감탄사를 사용해야만 했던 사도 요한의 붓의 힘이 느껴진다. 이 서신을 쓸 때 즈음에는 이미 90세 노구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을 사도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덤덤하게 표현할 수 없어, 여전히 뜨거운 피가 끓는 젊은이의 어휘로 "보라"를 외친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토마스맹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일곱 충만의 예배: 임재 찬양 기도 말씀 능력 기쁨 감사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는 뭐니뭐니해도 은혜로운 예배이다. 그래서 흔히들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말한다. 예배는 그만큼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당연히 목회자는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나는 습관처럼 예배에 일곱가지가 충만하기를 늘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이

나. 나는 영어로 이것을 임재한다는 뜻의 Presence에다 가득하다는 뜻의 full을 붙여 presenceful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었다.

예배는 뭐니뭐니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진짜 예배이다. 아무리 사람의 눈과 귀를 현란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실종된 예배요 참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난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둘째는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이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나는 이것도 찬양이라는 Praise에 full을 붙여 praiseful이라는 새 단어를 또 하나 만들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만 입이 있어도 다 찬송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즉 진정한 예배자들은 온 맘과 온 몸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는 기도가 충만한 즉 Prayerful한 예배이다. 우리는 평소에도 늘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예배 시간에 주

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중 대표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성기도도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소리를 발하여 직접 기도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의 충만한 임재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기도가 되리라 믿는다.

넷째는 말씀이 충만한 예배이다. 나는 이것을 예언이라는 prophecy에다 full을 합쳐 prophycful 하다는 말로 표현한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침묵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광야에서의 만나처럼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다. 그런즉 참된 예배자들은 예배를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귀를 간지럽게 하는 사람의 말이나 사상이 아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찬양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예배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의 충만함이다. 즉 Powerful한 예배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예배자들은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새로운 비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예배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즉 Joyful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난 예배는 진지하되 즐겁음과 감격이 가득해야 된다고 믿는다. 내가 아는 한 성경에서 보이는 예배의 장면은 대부분 그렇게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예배자들은 다시금 주님을 향한 감사에 충만하게 된다. 즉 thankful한 예배이다.

나는 모든 진정한 예배자들의 예배는 이런 일곱가지 충만함이 온전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예배와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이를 위해 습관적으로 기도한다.

여러분들의 예배에 이 일곱 충만의 은혜가 있는가? 단 한 분의 예배자도 예외없이 모두 예배를 통해 이 일곱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기도한다.

누군 쉬는 것 좋은 줄 모르나요



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교회에 주어진 복음의 능력 이젠 깨어서 사용할 때

제가 안식 기간 3주를 지내고 돌아오며 갑자기 걸려 왔더니 보기에 딱해 보였던가 봅니다. 어느 분이 "손 목사님은 안식 기간동안 쉬지를 않아서 더 병이 나서 오느냐"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원래 체질이 워커홀릭이 되어서 일에 무이는 면도 없지만, 사실은 지금 이 때가 몇 주일을 쉬지만 오기에는 상황이 저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목회는 목회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대신 안식 기간을 활용하여 밖의 일을 해야 하는 절박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생각하면 될 사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엄청 당하는 때이고 크리스천들이 형편없이 두드러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안타까운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이 속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 보도에 의해 제대로 된 영적 판단을 못한 채 속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 열방 선교라는 단어가 한국 기독교인들을 매료시키고 있지만 한국 교회 자체가 말바닥에서

부터 사단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채 1천만명 교인이라는 숫자 개념에 속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너무 손쉽게 허물어지는 중입니다. 물질에 취하고, 세상 유행에 중독되어 사회와 젊은 세대의 비아냥을 당하며 존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며 교회의 미래가 허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큰 교회들이 많다는 장점은 그들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찾던 속의 태풍처럼 큰소리를 낼 뿐이지 정작 밖으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문에 당하며, 인터넷과 TV에 공격 당하면서 한국 교회가 너무 쉽게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앙심처럼 크리스천들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셋째,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이 너무 어이없이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본래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구하는 능력이며, 빛과 소금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특권을 받은 것이 복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없도록 그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지금이야말로 미스비에 모여 회개의 물결을 붓고 민족과 교회를 다시 일으키게 해야 할 때인데 온신할 줄 모르는 거인처럼 있는 힘껏 쓰지 못하는 채 어거적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눈앞에 보면서 저 혼자 쓴다는 개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두 주간동안 많은 동료 목회자들을 만나고 젊은 세대 지도자들과 회동하면서 갈렐산 기도를 꿈꾸고 대각성 기도의 부르짖음을 계획하느라고 바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민족과 교회는 따로 있고, 누구의 교회가 따로 있다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어차피 하나이며 한 운동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까지 2년 2개월이 남았는데 나라와 교회를 살리는 일에 전력 질주하다가 여호수아에게 바통 체인지를 하는 것이 더욱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예, 저도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동안 쉬고 있던 분들도 다 뛰어들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침침하십니까?

[죽침]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원 대학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초진 무료! T213-380-0853

[새벽강단 55] 지켜 행하면 살리라



김창군
하나교회 목사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의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망하여 새벽예배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2011년 11월 19일 토요일
제목: 지켜 행하면 살리라
본문: 레위기 18:1-18

18: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18: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18:4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8:5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여호와이니라
18:6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는 여호와이니라
18:7 네 어머니의 하체를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18:8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18:9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18:10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18:11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18:12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18:13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18:14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18:15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18:16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18:17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라 이는 악행이니라
18:18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의 말씀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17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제사법과 규례에 대해서, 18-17장은 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십니다.
18: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각종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썩은 때, 이방의 풍속과 우상을 섬겼던 온갖 악습을 벗어 버리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신정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끊임없이 세상과 구분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단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린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18:5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재지변과 금융의 위기로 많은 우거짐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적인 문제, 내 삶에 풀어야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공간을 줄여가야 합니다.
레위기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풍속에 젖은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 40년의 광야를 주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누구를 찾으나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경에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하

나눔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8월부터 18절에는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현대의 구조 속에서 이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근친상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장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일부일처는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일부다처제로 심지어는 어머니나 동생과도 결혼하는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세상의 풍속이란 것입니다. 악이 편만해지고 악한 구조 속에서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벤후 1: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삶을 주관하고 살라고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가야 합니다.

벤후 1:5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1: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1: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

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을 존중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흉도 없고 점도 없는 흠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교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좇아가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별력, 통찰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은 세상을 떠나는 맛을 지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 우리 자녀, 우리 가정, 기업을 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결실로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음란한 유희와 세상의 문란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야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이 교회와 연결이 되어 제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설교할 때 하나님은 큰 배움을 제게 주셨습니다. 원래 한 2백 명이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분열되어서 1년 전에 어른 2명, 어린이 5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인교회에 있는 지역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나면.
이곳은 중국인들이 많은 곳으로 영적으로는 역눌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서기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매일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단둘이 새벽기도를 할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사역도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또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꿈입니다.
이번에 씨앗이란 집회를 하며 불신자들을 전도하려 합니다. 지난 1년간 기도하며 왔더니 이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지켜왔던 성도들의 상처가 회복되었던 것이지요. 내실을 다지는 데에 집중했던 이제 성도들이 전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는 그런 일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요?
"투게더"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성도, 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니다.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커뮤니티까지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관건입니다.
다음은 짧은 인터뷰.
-교회에 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질

감사는 인생의 행복을 끌어 당깁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행복을 끌어 당깁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지난 일년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으로 감사, 말로 감사, 물질로 감사, 몸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전염병과 같아서 옮겨 다닙니다. 빠른 속도로 퍼집니다. 내가 감사하면 친구가 감사하고 친구가 감사하면 공동체로 영향력을 끼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감사하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감사하고, 성

도들이 감사하면 교회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감사불감증에 걸려있는 듯합니다. 감사를 못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밥맛을 잃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똑같이 씹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짜증만 나옵니다.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영적 병에 걸린 사람은 감사의 맛을 모릅니다. 그 삶에서 감사가 멀어

집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중단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에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7)
성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의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만일 자기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하라고 한다면 감사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면 감사를 덧붙이고 싶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언제 어디서 누가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칼 힐터의 행복론에 보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적용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큰 것만 보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평범한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다. 가까이 있는 것부터 감사하세요. 별일 없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음을 감사하세요.
엡5: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실천을 가정에서부터 실행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회사에 나가서 하루종일 일을 하며 사는 가정 이 있습니까? 건강한 부부됨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 자녀들에게 감사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고백하십시오. 가정에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작은 것,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작은 것에 큰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 집·건물 경매 STOP!!! ★

긴급경매 NOT, TRO, QWR, BK 전문

- 최장기간 연장 "합법거주" 약속 퇴거명령번호, 연방법, 주법 의거할.
- 그외 형사상채, 마약소지및판매, 강도, 강간, 폭행, 배우자폭력, 음주운전...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이 변호합니다"

메리츠 법률그룹 / 이진우
18000 STUDEBAKER ROAD, #700, CERRITOS, CA 90703
TEL: 888-210-1238 / FAX: 888-210-1239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12월 18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 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숙성과정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지지)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독사님 추천서 10% 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적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편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사과 판매다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등골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금 샅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 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Natural Hot Spring!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름이다!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텐튼 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30여개국 해외진출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텐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플러밍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싱크대, 욕조, 반기 등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 교체
새거나 타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각종 Faucets, 디스포저,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www.knamedia.com
1.888.894.8949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 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방수·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140년 전통 가진 미서부침례신학교

졸업 후 원하는 교단서 안수 받고 사역 가능



배효식 교수가 ABSW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미서부침례신학교(American Baptist Seminary of West, ABSW)는 1871년 설립돼 올해로 140년 전통을 가진 명문신학교다. 1962년에 세워진 Graduate Theological

Union(GTU)의 초대 회원으로 미국 서부에 세워진 침례교회의 전통 보수적 신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신학교는 다양한 교단 전통과 교단 신학을 교육하는 교수들이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교리와 교단 규범을 가르침으로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각자가 원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사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진보적이라 평도 받고 있다. 한때 Berkeley Baptist Divinity School이란 이름으로 신학 교육을 해 온 이 학교는 침례신학을 근거로 교육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신학 교육 분야를 가지고 GTU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교육하고 있다.

ABSW는 ATS에 인가돼 있는 학교로 M.A., M.Div., D.Min.을 공부할 수 있고, Th.D. 혹은 Ph.D. 학위는 GTU 혹은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할 수 있으며, 한인 목회자들을 환영하고 있다.

휴스턴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던 배효식 교수도 그 학교에서 은퇴한 후, ABSW로 왔다. 그는 "이 학교는 성서를 중심으로 한 신학 교육을 통해 미국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 했다"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경건의 삶을 유지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는 예수의 박애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하는 점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은 내년 1월에 개강되며 학생 모집은 11월부터 시작된다.

문의: 조셉 정 박사 213-200-2592

토마스 맹 기자

소수 정예로 교육에 힘쓰는 두란노신학교

김호 CEO 학감 "신학생은 소명이 확실해야...공부는 엄격하게"

확고한 신념을 갖고 소수 정예로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다. 두란노신학교 설립자이자 CEO 학감인 김호 목사는 제대로 공부해서 지식을 쌓은 후 복회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시작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면 소명이 우선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호 목사를 만나봤다.

-학교를 하게 된 배경과 학교 소개를 한다면.

나는 전기도 없고 찾길도 없는 경상도 산골 출신이며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다. 얼마나 낙후된 동네냐 하면, 밤에 호롱불이 없어서, 돌에 송진을 태워 불을 밝히곤 했다. 그리고 짐승소리를 들으면서 자고 깨면서 살았고, 농사가 안되는 저수준 땅에 살았다. 6년간 교회 청소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다. 검정고시를 거쳐 계명대 철학과에 들어갔다. 그래서 칸트, 헤겔 원서까지 읽게 됐다. 한국에서 7년동안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생활을 하고 미국에 들어왔다. UCLA 철학과를 거쳐서 아주사 대학에 편입해 졸업하고, 신학대는 개혁신학교를 졸업하고 트리니티신학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개혁신학교에서 9년간 교편을 잡고 미주총신대에서 3년간 가르쳤다. 현재 우리 대학 이사장은 이성희 목사(서울연동교회)이고, 교수는 6명, 학생은 15명이다. 내 신념이 신학교는 담뱃을 금지하고 제대로 가르쳐서 목회할 수 있는 사람 길러야겠다는 것이다. 소수 정예로 교육을 하고 있다. 나는 예전에 라이프대학교에서 5년간 박사 원장을 해서 학교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 발급한 학감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학교는 한인타운 김슬리와 올림길 교사이 나성중부교회에 위치하고 있다.

나는 지금껏 여러 대학에서 학감을 하고,



CEO 학감 김호 목사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가르치면서 '신학교는 이래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가이드 라인이 있었는데, 후원자가 생겨서 학교를 시작하게 됐다. 주정부에서 인가를 받는데 주정부에서 교수 7명을 요구하는 등 굉장히 힘들게 인가를 받았다. 요즘은 쉬워졌다고 들었다. 공부는 소수정예로 엄격하게 수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람된 일이 있다면.

최근에 느끼는 것으로, 목회자도 우리 학

교에서 공부하는데 전혀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배우게 돼 놀라는 분들이 있다. 요즘 로마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목사 안수 받은 것을 부끄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낀다. 신학에 빠져들면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매력 때문에 포기를 못한다. 신학을 공부하면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우리 학교는 근본주의 5대 교리를 믿어야 교수로 채용한다. 동정녀로부터 탄생, 육체의 부활, 성경무오, 대속, 재림심판.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교수로 채용을 안 한다. 실적이 모자라더라도 확실히 중생한 교수들만 쓰고 있다. 철저하게 성경적인 신학교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신학교를 지망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먼저 소명이 확실해야 한다. 확실한 소명으로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 그게 없으면 불행하다. 나는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설교의 주 내용은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게 아쉬웠는데 이후 이산근 목사가 목회했던 대구제일교회에서 6년간 청소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회복했다. 이 목사가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설교를 잘하시는지 그 교회 다녔다는 것 자체가 아주 행운이었다. 내 신학이 이산근 목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된다. 그 분이 로마서 주석을 출판할 때, 내가 인쇄소에 다니면서 심부름을 했었다.

우리 학교는 근본적으로 보수 신학을 한다. 다원주의 신학은 거부한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 받기 힘들다.

문의: 213-507-1933(두란노신학교)

토마스 맹 기자

"한의학, EHB에 꼭 포함돼 의료혜택 받아야"

[인터뷰] 거주한의사협회 유도열 회장 "미국 내 한의 치료, 보험혜택 가능해"

"5만명 서명 목표... 편지 보내기 적극 참여해야"

지난해 미 연방의회에서 미국의 건강의료 제도를 개혁할 Affordable Care Act(실질 의료법)를 통과시켰다. 이 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 보험의 혜택 속에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된 변화 중 하나가 Essential Health Benefits(EHB, 필수건강혜택)의 개발로서 이는 2014년부터 시작될 제도로 의료보험에 일련의 건강의료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HHS, 미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떤 의료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킬지에 대해 논의 중으로, 지금이야말로 한의철구 서비스가 의무적 건강의료 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인들이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고 거주한의사협회 유도열 회장(신노동의원 원장)은 말한다.

거주한의사협회는 이를 위해 진행 중인 5만명 서명운동에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

하길 호소하고 있다. 본지는 유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캠페인에 대해 설명해 달라.

오바마 정부의 건강의료보험 개혁안의 일부로 한의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의학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현대 의료계는 서양의학이 동양의학을 인정하는 단계에 있다. 정부는 의료 보험사들이 보험수가를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건강서비스의 범주를 선정하고 있고, 현재 각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 한의학이 들어가게 되면 제도적 혜택이 주어지고 예산을 저축할 수 있다.

지난 4월에 한의 치료가 전국적으로 25세까지 의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EHB 개혁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민주당 주다 추 연방 하원의원과 미국 보건복지부 허브 솔츠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사 관계자들과 미

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캘리포니아주 한의사협회, 거주한의사협회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 한의학이 가지는 장점, 의료비용 절감 효과, 타 의료 서비스에 비해 공공안전성이 높은 점, 높은 치료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2014년에 의료법안에 한의학이 들어가는 여부가 내년 5월에 결정된다. 한인 커뮤니티가 여기에 대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앞으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나.

내년 5월까지 5만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통 한인 50~60대는 한의학을 선호하는 편인데 메디칼이 중지되면서 이번에 한의약이 채택 되면 10배 이상의 메디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법안에 한의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가족 그리고 한인 모두의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족과 친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적은 비용으로 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의학 치료는 침 하나와 약으로 가능하다. 이것을 미국 정부에서 알고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

한인을 통해 모두가 한의학으로 저렴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다. 우리 의료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서 필요한 것인가. 이번에 한의학이 들어가지 못하면 앞으로 들어가기 힘들다.

-앞으로 거주한의사협회의 계획은 무엇인가.

조직에서 힘이 나와야 한다. 각 지부 부회장이 책임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한의학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전 한의사가 먼저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가 먼저 나섰을 때 주변에서 따라오는 것이 우리가 뒷전에 있으면 안 된다.

또 연방 송년의 밤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협회에 신입회원이 늘면 주류 사회에 명분이 생긴다. 중국인 중의사협회와 미국인 한의사협회도 있는데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는 안 된다. 앞으로 협회가 교회에서 의료봉사를 통해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한의약 의료로서 국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장으로서 할 일이고 책임이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면 5~10만 표를 이룰 수 있다.

토마스 맹 기자



거주한의사협회 유도열 회장

참방방법

1. 편지 사이트 방문, <http://aaaom.rallycongress.com/>
2. Take Action 버튼 누르기
3. 페이지 제일 밑에 자신의 우편번호(zip code) 입력, 붉은색 첨부(Submit)버튼 누르기
4. 법적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입력
5. 편지 미리보기(preview letter) 버튼으로 확인 및 수정
6. 편지 보내기(send letters)버튼 누르기

아이토크비비로 집전화 요금 환~내리세요!

\$14.99

~~\$24.99~~

가격 파괴!

AT&T, VERIZON 집전화 완전 대체

2011년 11월 30일까지

Global Unlimited Plan

글로벌 플랜

-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14.99 /월

첫 6개월간, 이후 \$24.99/월

Global Unlimited Plus Plan

글로벌 플러스 플랜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혜택은기본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19.99 /월

첫 6개월간, 이후 \$34.99/월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 넘버**

한국 070 전화료가 필요없다!

나만의 한국 전화 번호를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전화료가 필요없다!

휴대 전화로 국제전화를

1.800.872.2902 [다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30일 환불 보장!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받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또는 기존 매점내 신규 아이템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703.349.7544**

등록번호: 2011-02-01호

환정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인터넷과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SouthBayHyundai Super Store **SB**

미주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푸엔테힐스 현대, 싸우스베이 현대로 오십시오. 최대규모, 최다 차량보유, 최신 장비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가격보장



2011 Equus
\$739 + tax
T.D.O \$2,999
O.A.C 3YR/36K (STK#041922)



2012 Genesis
\$399 + tax
T.D.O \$3,499
O.A.C 3YR/36K (STK#167271)



에쿠스, 제네시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에쿠스 리무진으로 달려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2012 Accent
\$169 + tax
T.D.O \$1,699
O.A.C 3YR/36K (STK#116397)



2012 Veloster M/T
\$179 + tax
T.D.O \$1,999
O.A.C 3YR/36K (STK#022103)

품질 보증된 중고차 최저 이자율 2.49%

다른 딜러나 은행에서 용자 거절 되신 분 일정의 비용만 내시면 100% 용자해드립니다. 문의: 제니 김

'09 AUDI A4	(158347A)	\$25,900
'09 HYUNDAI ACENT	(PSB305602)	\$11,000
'08 HYUNDAI ELANTRA	(375687A)	\$9,900
'10 HYUNDAI GENESIS	(PSB099541)	\$28,500
'11 HYUNDAI GENESIS COUP	(P052678)	\$25,990
'11 HYUNDAI SONATA	(P051692)	\$17,990
'10 KIA FORTE	(PSB218528)	\$12,900
'01 MBZ S CLASS	(041808A)	\$10,900
'09 NISSAN CUBE	(P080274A)	\$13,900
'07 NISSAN QUEST	(252252A)	\$13,600
'09 TOYOTA CAMRY	(PSB098560)	\$14,900
'10 TOYOTA COROLLA	(P382033)	\$12,990

'05 BMW 3 SERIES	(BW77656)	\$14,300
'10 CHRYSLER TOWN&COUNTRY	(B351286)	\$19,800
'09 FORD FOCUS	(B252470)	\$14,300
'03 HYUNDAI ELANTRA	(B095484)	\$14,300
'10 HYUNDAI SONATA	(BP594207)	\$15,700
'06 KIA RIO	(B060987)	\$8,400
'06 LEXUS GS430	(042922A)	\$24,699
'08 NISSAN ALTIMA	(118594A)	\$15,600
'09 SICON XD	(B037153)	\$15,399
'08 TOYOTA CAMRY	(399803A)	\$12,000
'04 TOYOTA SEQUOIA	(034181A)	\$10,500
'10 TOYOTA YARIS	(B320052)	\$13,599

상기 모든 모델은 어느 딜러보다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재고를 보유한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품위있고, 쾌적한 넓은 매장에서 친절한 각국의 세일즈맨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진심으로 만족하실 것입니다.

한인타운에서 20분거리 &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PH 푸엔테힐스 현대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WWW.PHHYUNDAI.COM
888.212.6431

세일즈 시간
▶ 월-토 9:00am ~ 9:00pm
▶ 일 10:00am ~ 8:00pm

서비스 시간
▶ 월-금 7:30am ~ 6:00pm
▶ 토 8:00am ~ 2:00pm

직원 모집 한국인 상담 제니 김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SB 싸우스베이 현대
20433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WWW.SBHYUNDAI.COM
888.531.0890

이력서 제출 michaelkim@phhyundai.com

FREE CAR WASH

\$27.95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Mazda 푸엔테힐스 마즈다

www.mazdaofpuentehills.com

Zoom-Zoom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형 2011 MAZDA 3

\$187 + TAX
Stock No. 490055

스페셜 0%

T.D.O. \$2,599
48month, 12K mile/yr O.A.C. with your 1st payment and license fee plus offer ends close of 11/31/11



한국인 상담 제니 김
1-888-536-0576



Sales Representative
조성국



17723 E.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최상의 가격
최상의 서비스

2011 MAZDA 5
편리한 미니밴

2011 CX-7
실용적인 SUV

스페셜 0%

2011 CX-9
럭셔리 SUV

스페셜 0%

2011 MIATA
여름 정취를 스포츠카